

“추석 연휴, ‘한가위 정취 물씬’ 순천 여행 떠나자”

16-18일 주요 관광지 5곳 한복 착용시 무료 입장 혜택
어린이 프로그램·6080 레트로 콘텐츠 등 볼거리 다채



▲순천드라마촬영장 전경. <순천시 제공>



▲순천만국정원 스페이스 허브.

▲순천 낙안읍성 전경.

순천시가 한가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풍성한 순천 여행코스를 마련했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주요 관광지 5곳에서 추석 연휴 기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주요 관광지 5곳은 ▲순천만국정원 ▲드라마촬영장 ▲순천 낙안읍성·뿌리깊은나무박물관 ▲오천그린광장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주요 관광지 5곳에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무료 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할링이 가득한 순천만국정원 스페이스허브 원형광장에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정원화가 WE' 행사가 진행된다.

신발 던지기, 팔씨름, 딱지치기 프로그램이 일별로 진행되며, 성악, 팝페라, 퓨전국악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동물원에서 곤충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시크릿어드벤처에서는 우주 약당들에게 공격 받는 우드베어를 구출하는 슈퍼히어로 역할 놀이인 '캐릭터대소동'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테라피가든에서는 마당에서 페퍼민트 오일을 활용한 향 체험, 음악과 함께 하는 명상체험이 무료로 진행돼 정원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6080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촬영장에서는 16일부터 17일까지 특별한 레트로 콘텐츠를 마련했다. 젊은 세대는 색다른 경험을, 어르신들은 추억을 회상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즐거운 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순양극장 앞에서 추억의 뽕튀기 기계에서 나온 뽕튀기를 판매하고, 달동네 마당에서는 맷돌, 절구, 다듬이 체험이 운영된다.

또한 방문객이 직접 자동차 장난감을 조립해 트랙에서 레이싱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80년대 거리에서는 투호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전통'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순천 낙안읍성에서는 추석 맞이 특별 공연을 운영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 읍성 내 객사에서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극 등 다채로운 전통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순천 낙안읍성에 방문했다면 잠시 '뿌리깊은나무'의 발행인 고(故)한창기 선생이 생전에 수집한 유물 6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 뿌리깊은나무박물관도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찾아가는 정원문화카페로 꾸며진 이색적인 오천그린광장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다.

지난해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순천시는 이번 추석 연휴인 14일 오천그린광장에서 '정원문화도시'를 감싸 선보일 예정이다.

순천시 홍보대사 '나영'과 아그라의 공연이 준비 돼 있으며, 피날레로 순천만국정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한다.

이 밖에 문화도시 예비사업 중 하나인 돔모양의 정원문화카페에서 인생네컷으로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고, 캐리커처, 우주선모양 연날리기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맞아 문체부에서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를 개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 숙박할인권을 배포 중"이라며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되는 만큼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한 순천으로 떠날 계획을 세워보자"고 밝혔다.

/순천=정기기자

화순군,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 준비 '착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서 6대 영역 표준조사·시민의견 공유

화순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 신청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최종보고회에서는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및 시민의견 수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화순군이 오는 12월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 신청을 위한 아동친화 6대 영역에 대한 표준조사와 시민의견 수렴 과정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강종철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화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아동친화도시 읍부서과장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인 나승은(㈜도티비엔 대표)의 용역 결과 보고에 이어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표준조사 및 시민의견 수렴은 18세 미만 아동 940명, 보호자 32명, 아동관계자 151명이 참가했으며, 소수집

단 아동 57명이 포함됐다. 조사 분야는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로 구분해 6대 아동친화영역에 대해 진행했다. 화순군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매뉴얼에 따라 표준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대조함으로써 아동·청소년과 주민의 인식이 과거와 어

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4개년 추진계획의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종철 추진위원장은 "아동친화도시 6대 영역 표준조사는 화순군 아동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적인 정책과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아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광양제철소, 전통시장서 '착한 선결제' 활동

2천여만원 상당 교환권 발행...취약계층에 전달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포스코 PHP 봉사단'과 함께 지역전통시장에서 '착한 선결제' 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올해로 5년째 맞이하는 포스코 PHP 봉사단의 '착한 선결제' 활동은 광양지역 전통시장 점포에 2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미리 결제한 후 교환권을 발행해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활동이다.

이번 활동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박경미 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광양 중마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 후 선정한 점포를 대상으로 지역상품권인 은누리상품권을 활용해 2천만원 상당의 선결제를 진행했다.

이후 발행한 사용권을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지역 취약계층은 이 티켓으로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쌀이나 반찬, 야



채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봉사단은 올해를 포함해 현재까지 '착한 선결제' 활동으로 총 1억원을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지원했다. 김명훈(광양취 대표이사) 포스코 PHP봉사단장은 "해마다 이어온 착한 선결제를 통해 '더 행복하게, 더 가치있게'라는 포스코 슬로건처럼 지역사회에 더 큰 가치를 전파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20-22일...친환경 기술·체험 선포

구례군은 10일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2024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구례군이 주최하고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탄소중립 실천과 흙 살리기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박람회 첫 날 가수 박혜신과 김희재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이 오른다.

주제관에서는 '생명의 근원 흙, 자연을 품은 구례'를 주제로 흙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새기는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며, 기업관에는 농업 관련 4개 기업이 참여해 친환경 농업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또 체험관에는 요리 특강, 친환경 미로, 흙 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



76개국 1천306편 출품작 중 53개 작품 시상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웅천 GS칼텍스 예술클루 일원에서 개최됐다. <사진>

영미·유럽·아시아 등 76개국 1천306편의 작품이 출품된 이번 웹페스트에 경쟁한 경쟁을 뚫고 시상식(어워드)에서 3개 부문 53개 작품 시상이 진행됐다. 여수시가 제작한 웹드라마 '하멜'은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웹콘텐츠 부문

한국의 '대대장손' ▲숏폼 부문 한국의 '뽕깡의 도시' ▲뮤직비디오 부문 스페인의 'Howl' 등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 앞서 여수시는 미국(world webfest), 영국(British web Awards), 브라질(Rio webfest Awards), 슬로바키아(azyl) 등 세계 유수의 웹페스트 조직위원회와 MOU를 체결해 향후 상생 협력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영국의 웹콘텐츠 제작자 Annie Qing

Han은 "대한민국 중소도시에서 이뤄낸 완성도 높은 행사와 특히 여수의 아름다운 경치에 놀랐다"며 "수많은 작품 중 나의 작품이 후보에 올라 영광이었고, 좋은 추억으로 오래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수상자들에게 전달한 트로피는 여수의 특색을 살려 하멜등대와 시조인 갈매기를 형상화한 것"이라며 "국경을 오가며 소비되는 미디어 추세에 발맞춰 국내·외 기반을 탄탄히 하고,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 브랜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 대표 유료 관광지 추석 당일 무료 개방

죽녹원·메타랜드·소쇄원·가마골생태공원 등 4개소

담양군은 10일 "추석 연휴를 대비해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는 등 사전 관광 안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의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추석 당일인

오는 17일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을 비롯해 메타랜드, 소쇄원, 가마골생태공원 등 4개소를 무료 개방할 계획이다. 무료 개방하는 관광지인 죽녹원은 8가지 주제의 대숲길을 따라 시원한 죽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한옥·죽욕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담

양군 대표 관광지다. 또한 메타랜드는 메타세쿼이아길을 따라 에코허브센터,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맨발걷기길, 어린이프로방스 등을 갖춘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소쇄원은 조광조의 제자 처사 양산보가 자연 속에서 살기 위해 귀향해 지은 정원으로, 조선시대 원림건축의 백미로 꼽히며, 가마골생태공원은 용문 소재 용추산을 중심으로 깊은 계곡과 기암괴석이 수려한 장관을 이루고 있는 명소다. /담양=정승근 기자

보성군, 2회 추경 7천899억 확정

1회 추경비 854억 ↑ "지역경제 활력 증진" 편성

보성군이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7억89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10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거쳐 확정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854억원(13.23%) 증액된 6천913억원, 특별회

계는 46억원(4.96%) 증액된 986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제2회 추경예산은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50억원

▲공공질서·안전 26억원 ▲문화·관광 130억원 ▲환경 173억원 ▲사회복지보 건 28억원 ▲농림해양수산 240억원 ▲국도·지역개발 분야 111억원 등이 증액됐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관광 기반 조성사업 15억원 ▲청년이어기키우기 좋은 돌봄환경 조성사업 20억원 ▲녹차마을 위계이션 조성사업 20억원 등이다. /보성=임병연 기자